

# 닭껍질로 만든 식자재 납품업체 적발

## 전국 7000여 학교·회사 등 납품 '충격'

닭껍질과 돼지고기 부산물 등으로 만든 불량식자재를 학교와 회사 등에 납품한 식품업체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들이 불량 식자재를 납품한 학교와 회사가 전국 7000여곳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

군산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저가의 원료를 사용하거나 함량 미달 불량식품을 제조·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로 업체대표 노모(56·여)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1월1일부터 3년 동안 함량 미달의 불량식자재를 전국 4459곳의 초·중·고등학교와 2838곳의 회사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학교급식 전문 납품업체를 운영하면서 소·돼지의 지방과 닭껍질 등 저가의 식재료로 만든 떡갈비와 통그랑뎡 등 56개 제품을 생산해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 품목 제조보고서보다 식재료 함량을 줄이거나 저질 원료를 사용하는 수법으로 생산단가를 줄여 300억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 그 중 17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저질 식재료로 만든 제품 포장지에 원재료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표기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해썬(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까지 받았다.

이들은 또 거래업체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대표이사 밑에 영업팀을 두고,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각각의 영업사원을 채용해 회사에서 제작한 거짓 사실이 기재된 팜플렛을 들고 다니며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올해 초부터 저질 불량식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 끈질긴 수사 끝에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지난달 31일 군산경찰서 직원들이 저질 식재료로 만든 식품을 학교와 회사 등에 납품한 일당을 적발하고 관련 증거물을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생산단가를 줄여 이득을 크게 남기기 위해 원재료 함량을 줄였지만, 인체에 해로운 재료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관할 지자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들 업체의 범행사실을 통보하고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김민근 기자·군산=문정곤 기자



## 덕진구, 전주술내고서 청소년보호 합동캠페인

덕진구(구청장 정태현)에서는 31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전주술내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민·관·학 합동으로 학교폭력 근절 등 청소년 보호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과 사랑의 울타리 봉사단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0월의 마지막 밤을 대비, 청소년들의 호기심으로 인한 일탈과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술내고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학교폭력 근절 안내문과 홍보물(일회용밴드, 불티슈, 수첩등)을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배부했다.

구청 관계자는 "청소년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안전과 행복을 줄 수 있다"며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 완산구, 한일고 방문 흡연·음주 예방 캠페인

완산구청(구청장 이용호)은 31일 청소년을 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한일고등학교를 방문해 흡연·음주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찾아가는 청소년보호 캠페인'은 유해약물의 종류, 흡연과 음주 예방을 위한 모형과 사진,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비교사진 등 10여점을 전시해 담배·알코올의 유해성을 알렸다.

유정옥 가족청소년과장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지키고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에 대한 예방 활동 및 청소년보호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 단풍미인 한우 전주점 동산동 어르신 식사대접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단풍미인 한우 전주점(대표 이경희)에서는 31일 동산동(동장 이남철)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 어르신 50여명을 초청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점심을 대접했다.

이경희 대표는 소외되고 지친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쌀쌀해져 가는 날씨에 어르신들이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자리를 마련했다.

이경희 대표는 "어르신들에 조금이나마 위호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임하겠습니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 편의점 담배 절도범 추적중

전주시 서신동의 한 편의점에서 120만원 상당의 담배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전주 서신파출소는 지난 29일 새벽 3시 30분경 편의점의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가 담배 200갑과 금고안의 현금을 절도한 3인조 절도범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주변 지역의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통해 10대로 추정되는 이들의 얼굴을 파악하고 근처 PC방과 24시간 카페, 찜질방 등을 중심으로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 “국정농단 책임지고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

## 전북진보연대 시국선언 “최순실 국정농단의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 성토

전북진보연대는 지난달 31일 전북도청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시국선언문을 통해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초유의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태가 벌어졌다”며 “선출되지 않은 비선실세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을 뜯어고치고, 기밀사항이 포함된 국가의 외교안보 사항을 보고받고, 청와대와 내각의 인사에 개입해 국정을 농단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순실-박근혜를 정점으로 한 정권의 추악한 몰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이게 나라냐?’고 묻는 국민적 탄식과 분노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다”며 “민주공화정과 국가시스템은 철저히 붕괴됐고 21세기 대한민국은 봉건왕조만도 못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박근혜 정권은 국민복지와 경제민주화 공약을 파기하고 서민 호주머니를 터는 데만 골몰해온 재벌정권, 세월호 참사로 300명이 넘는 무고한 학생과

시민들을 수장시키고도 진상규명을 끝까지 방해한 패륜정권,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위안부 밀실야합을 밀어붙인 친일독재정권”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들은 또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자격도, 권위도, 직무능력도 상실했다”며 “국민이 위임한 공적 권력을 사유화하고 봉건 전제 군주로 군림한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하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서울에서는 수만의 시민들

이 운집한 가운데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청와대로 향하는 민심은 광화문 광장을 접수했다”며 “전북지역에서도 박근혜 정부 퇴출을 위한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진보연대는 이날 공식 출범하는 박근혜 퇴진 전북 비상시국회의와 함께 “민중의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11월 민중총궐기에 동참,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고 정권이 퇴진하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 우석대 교수협 “대통령 하야·거국내각 구성”

를 자행한 박근혜 정권은 스스로 하야하고 국회는 즉시 국민거국내각을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교수협회는 “박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으로서 기본적인 역할마저 수행해 낼 능력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이 백일하에 드러난 가운데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는 그 정점을 찍었다”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의 수반이 아니라 최순실과 몇몇 측근들에 의해 조종되는 꼭두각시, 박 대통령은 즉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밝혔다.

이어 “진리를 탐구하고 후세에 전수해야 할 책무를 지닌 교수로서 우리는 국민 모두와 함께 극심한 허탈감에 빠지고 말았다”면서 “이런 상황을 자초한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은 국민 앞에 그 진실을 낱알이 공개하는 한편 국정을 농단하고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전원 즉각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우석대학교 교수협의회(회장 최광수 교수·사진)는 최근 최순실씨 국정 개입 파문과 관련, 시국 선언을 통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수준의 국기 문란 행위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